

# 기후변화 속, 보르도가 찾은 해답… ‘그레이트’ 2022 빈티지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05

우려가 기대로 바뀌었고, 기대는 현실이 됐다. 프랑스 보르도 와인 2022 빈티지에 대한 서사다.

와인은 과실미와 부드러운 타닌이 균형을 잘 맞췄고, 신선한 생동감이 느껴졌다. 보르도 와인이 기다리지 않아도 원래 이렇게 향긋했나 싶더니 입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풀렸다. 초여름부터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2009년 이후 가장 무더웠던 해였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보르도만의 모범답안을 찾은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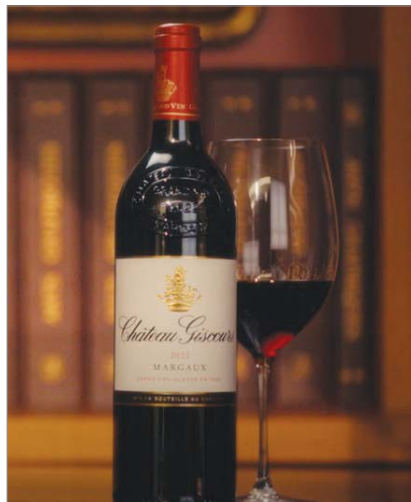
프랑스 보르도 그랑 크뤼 연합(UGCB)이 주최한 ‘2025 보르도 그랑 크뤼 전문인 시음회’가 지난 달 열렸다. 68개 그랑 크뤼 와이너리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2022년 빈티지를 선보였다.

‘그랑 크뤼(Grand Cru)’는 프랑스어로 뛰어난 포도밭을 뜻한다. 매우 우수한 품질의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나 포도밭에 부여되는 명칭이다. 현재 132개의 최고 샤토들로 구성된 UGCB는 1973년에 설립됐다. 매년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시음 행사를 열어 각국이 회원 샤토와 만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시음회는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700명 안팎의 와인 업계 관계자들이 몰렸다.

2022년은 기후만 놓고 보면 기대를 할 수 없었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2025 보르도 그랑 크뤼 전문인 시음회’.



와인 스펙테이터와 제임스 서클링이 각각 1위로 선정한 샤토 지스쿠르 2022(왼쪽)와 샤토 디쌍 2022.



와인 스펙테이터와 제임스 서클링이 각각 1위로 선정한 샤토 지스쿠르 2022(왼쪽)와 샤토 디쌍 2022.

던 해다. 서리와 우박에 이어 봄에는 이른 더위가 찾아왔고, 몇 차례 폭우까지 이어졌다. 지구온난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매우 덥고 건조한 여름도 견뎌야 했다.

포도재배부터 수확, 양조까지 그간의 노하우와 기술을 쏟아부은 와이너리는 물론 기후변화에 놀라게 적응한 포도나무가 반전의 스토리를 만들었다.

프랑수아-자비에 마로토((Francois-Xavier Maroteaux) UGCB 회장은 2022 빈티지에 대해 “풍부한 과실미와 탄탄한 구조감, 신선함과 집중도를 모두 갖춘 뛰어난 균형감을 보여주는 빈티지”라며 “지금 바로 마셔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20~30년 뒤에도 훌륭한 잠재력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로토 회장은 올해 2월 UGCB의 회장으로 선

출됐다. 생-줄리앙에 위치한 와이네리 샤토 브라네르-뒤크뤼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아버지 패트릭 마로토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UGCB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인 제임스 서클링은 “올해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새로 출시된 보르도 2022년 빈티지”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덥고 건조한 해였음에도 레드와 화이트 와인 모두 집중력과 생동감을 유지하는 모습에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대부분의 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15도에 육박하고 산도가 낮지만 이런 특징 덕분에 바로 마시기가 쉽다”며 “더 이상 보르도 와인을 따라 마시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말을 맞아 올해의 와인을 가리는 자리도 모두 보르도가 차지했다. 평가기준은 물론 지향점도 다

른 두 매체가 올해 최고의 와인으로 나란히 보르도 2022 빈티지를 택했다.

와인 스펙테이터의 선택은 ‘샤토 지스쿠르 2022’다. 제임스 몰스워스는 “샤토 지스쿠르는 보르도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와이너리들도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며 “특히 2022년 빈티지는 그 해의 특징을 완벽하게 담아냈다”고 평가했다.

제임스 서클링은 ‘샤토 디쌍 2022’를 1위로 꼽았다. 그는 “풍부하고 복합적인 과일 향이 한 모금,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다시 찾게 만들었다”며 “생산량은 10만병이 넘고, 가격도 70달러 안팎으로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mahn1@metroseoul.co.kr

## 문화 단신

### 메가박스, 연말 책임질 돌비 시네마 라인업 ‘풍성’

반지의 제왕, 주토피아2, 아바타 ‘대작’ 상영  
웅장하고 공간감 넘치는 사운드로 생생함 전달

메가박스가 연말 극장가를 사로잡을 세 편의 영화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 ‘주토피아2’, ‘아바타: 물과 재’를 생동감 넘치는 비주얼과 웅장한 사운드로 압도적인 감동을 줄 돌비 시네마로 상영한다. 이번 상영작은 돌비의 프리미엄 HDR 영상 기술 ‘돌비 비전’과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된 돌비 시네마에서 관람할 수 있다.

먼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반지의 제왕’ 3부작의 두 번째 편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이 돌비 시네마와 돌비 비전+애트모스에서 3일부터 재개봉했다. 평화를 지키고자 절대반지를 파괴하기로 결심한 반지 원정대가 이를 위해 반지가 처음 만들어진 운명의 산 모르도르를 향해 나아가는 험난한 여정을 담았다. 광활한 헬름 협곡에서 로한 왕국과 아이센가드 군이 벌이는 치열한 전투는 돌비 비전을 통해 압도적인 스케일로 생생하게 펼쳐지며, 돌비 애트모스로 구현된 웅장한 사운드는 관객들에게 드라마틱한 감동을 선사한다.

4일부터는 9년 만에 돌아온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 2’를 돌비 시네마 포맷으로 관람할 수 있다. 주토피아 최고의 콤비 주디와 닉이 도시를 뒤흔든 정체불명의 뱀 게리를 쫓아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며 위험천만한 사건을 수사하는 모



메가박스가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 ‘주토피아2’, ‘아바타: 물과 재’를 웅장한 사운드의 돌비 시네마로 선보인다.

험을 그렸다. 주토피아 곳곳의 다채로운 지역과 다양한 종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 주디와 닉이 새로운 세계로 뛰어드는 장면들은 돌비 비전의 선명한 명암 대비를 통해 생생하게 구현된다. 여기에 돌비 애트모스의 공간감 넘치는 사운드로 마치 두 주인공과 함께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경험할 수 있다.

17일에는 3D 판타지의 새 역사를 쓴 ‘아바타’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 ‘아바타: 물과 재’가 한국에서 최초로 개봉한다. 첫째 아들 ‘네데이암’의 죽음으로 상실에 빠진 ‘제이크’와 ‘네이티리’ 앞에 재의 부족이 새롭게 등장하며, 불과 재로 뒤덮인 판도라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위기를 그렸다. 뜨겁게 타오르는 판도라의 강렬한 비주얼은 돌비 비전으로 한층 장엄하게 구현돼 환상적인 비주얼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바다와 공중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역동적인 전투는 돌비 애트모스의 다이내믹한 사운드를 통해 차원이 다른 몰입감을 제공한다.

### 롯데시네마, 넥슨과 ‘블루 아카이브’ 4주년 기념 영화 개봉

롯데시네마가 넥슨과 손잡고 ‘블루 아카이브’ 4주년을 기념한 영화 개봉과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오는 12일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하는 ‘블루 아카이브: 디 오케스트라 인 시네마’는 넥슨의 대표 인기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음악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재해석한 ‘2025 사운드 아카이브: 디 오케스트라’ 공연 실황을 담은 작품이다.

이번 영화에는 ‘Constant Moderato’, ‘Aoharu’, ‘꿈길 위의 꽃’ 등 ‘블루 아카이브’를 대표하는 곡들의 오케스트라 편곡과 다양한 악기 및 보컬, 중창단 협연으로 완성된 풍성한 무대를 극장 스크린에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여기에 게임 개발진과 공연 관계자의 인터뷰가 더



해져 오직 영화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비하인드도 공개한다.

특히 이번 작품은 롯데시네마의 대표 음향 특화관 인광음시네마에서도 상영되어 오케스트라의 깊은 울림과 웅장함을 섬

세한 사운드로 즐길 수 있다. 개봉에 맞춰 주차별 굿즈와 함께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어 극장에서 4주년 축하 열기를 더욱 뜨겁게 이어갈 예정이다.

### 전시부터 체험까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서울 팝업 오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서울 공식 팝업이 4일 성수동에서 본격 오픈했다. 이번 팝업은 작품 속 세계관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한 체험형 공간이다.

이번 팝업은 3개 층 전체가 하나의 세계관 체험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3층 쇼룸에서 본격 관람 전 상품 무드를 먼저 경험하고, 2층에서는 ‘How

It’s Done’, ‘Soda Pop’ 등 대표 OST 테마 공간뿐 아니라 다양한 전시·체험존을 통해 작품 전체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다.

이어 1층에서는 상품 현장 수령 및 구매 후 키링·와펜 커스터마이징 공간을 거쳐, 마지막 ‘골든 스테이지’에서 세계관 메인 서사인 ‘훈문’을 직접 완성하며 경험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진핑·마크롱 회담…“이건 극복하고 전략 협력 강화”

/사진 뉴시스

▲日 금리 인상 ‘신호’ 영향 계속…10년물 국채금리 18년만 최고치

▲“日다카이치 ‘중·일 성명’ 언급은 긴장 완화 움직임”

▲日 출생아 2025년에도 ‘역대 최소’ 전망…예측 15년 앞당겨져

▲트럼프, ‘뇌물수수 혐의’ 민주당 하원의원 깜짝 사면…공화당 당혹

▲美 베네수아 공격?…우방국 자처 중, “군사 지원 않고 경제 이득 챙길 것”